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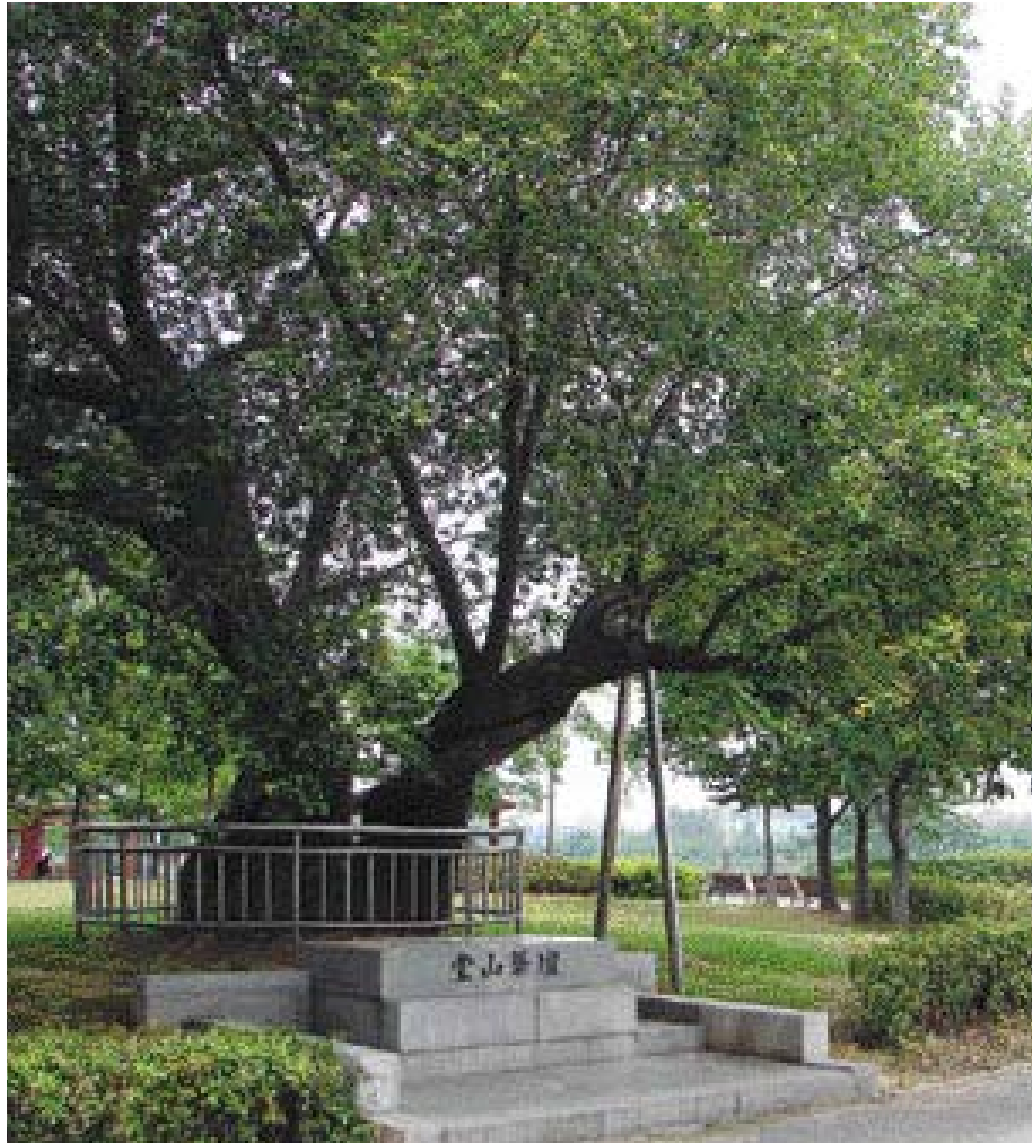
■ 공원 탐방

⑥ 쌍암공원



# 4만㎡ 인공호수 물 뿜는 신도심 '녹색 활력소'

광주시 광산구 첨단1동 쌍암공원 일대. 거대한 호수를 주변으로 녹지가 펼쳐져 있다. 아래는 쌍암공원 입구에 서 있는 수령 230년의 왕버들나무.



광산구의 대표공원인 쌍암공원은 14만7962.1㎡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공원이다. 중심에 4만 2043㎡의 저수지가 자리하고 그 주위를 녹지와 운동장, 체육 및 편의시설, 우레탄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 현대식 공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광산구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지난 1991년,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공원으로 지정돼 20년 동안 광산구민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과거 논밭이었던 부지에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이 하나씩 들어서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쌍암동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공원의 명칭에서 '첨단'이라는 이름 속에 '쌍암'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 면적 14만7000㎡, 1998년 조성

조광철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쌍암동에는 과거 두 개의 큰 바위가 있었으며, 이 바위가 마을의 전면과 후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아마도 개발과정에서 바위들은 제거된 듯하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쌍암공원은 2·4차선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에 아파트단지, 서쪽에 산업단지 및 연구시설, 남쪽에 상업시설, 북쪽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원에는 오전과 저녁시간대는 건강을 위해 산책 또는 운동하는 아파트 주민, 밤에는 상업시설을 찾은 외지인이나 산업단지 근로자, 오후에는 노인·주부, 어린이집 원생, 인근 병원의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공원은 지난 1992년 4월 조성에 들어가 6년

만인 1998년 2월 준공됐으며, 1999년과 2000년 각각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통해 면적이 늘었다.

내부는 저수지·도로 및 광장·녹지·교양·운동 등 기타 시설로 분류되는데, 저수지와 녹지의 면적이 11만5621㎡로, 전체의 78.14%를 차지하고 있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온갖 나무들로 그늘이 우거진 곳에 우레탄길 9027㎡가 깔려 있으며, 그 주변에 청소년수련관(5299㎡), 야외공연장(77㎡), 농구장 및 축구장(6340㎡), 모래사장(832㎡) 등이 배치돼 있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우레탄길 중간 중간 벤치, 정자 등이 있어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에게도 안성맞춤이다.

### 야외공연장 주말 음악회·공연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보호수도 공원 한쪽에 '터줏대감'처럼 서 있다. 1982년,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이미 보호수로 지정된 230년 수령의 왕버들나무로, 그 둘레는 4.5m에 이른다. 오랜 시간 풍파를 거처와 이제는 받침대로 가치를 지탱해야 하지만 여전히 건장한 모습으로 공원 입구를 차지하고 있다.

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전창민(33)씨는 "주말에는 외지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쌍암공원은 광산구를 상징하고 있다"며 "노인이나 주부들은 건강을 챙기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놀이를 즐기며, 젊은이들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쌍암공원이 적격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이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주말이면 음악회나 공연 등 각종 이벤트를 벌여 주민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원천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시제안



이종근

광주시는 지난해 '인본디자인도시'를 선포했으며, 그 1주년을 맞아 지난 5월25일 이순종 서울대교수, 이영범 경기대교수, 천득염·조동범 전남대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유럽이나 일본의 도시디자인 사례를 들어 광주가 앞으로 어떠한 주제와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됐다. 이순종 교수는 대표적인 세계 속 디자인 도시로 이탈리아 밀라노, 영국 런던,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이야기했는데, 이 중 헬싱키와 바르셀로나가 인상 깊었다. 2011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헬싱키는 예술·정보·건강·창의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 이미 10여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몇 세기에 걸쳐 건축중이 있는 패밀리아 성당 등 거주지의 창의적인 건축물들이 도시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프랑크 게리가 디자인한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세

## 시민들 참여 이끌어내고 비전 따른 꾸준한 정책 도시 디자인 성공 요체

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됐다. 이영범 교수는 보다 구체적인 디자인도시 방안을 제시했다. 네덜란드 드라흐텐이라는 도시는 도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모두 없앴다. 그로 인해 4년 동안 36건 발생한 교통사고는 2년 동안 단 2건으로 줄었으며, 자동차가 교차로를 지나는 시간도 50초에서 30초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일본 구마모토 현 세이와 분라쿠 마을은 분라쿠(文樂) 인형극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 예도 말기 양식의 목조극장을 지어 매년 15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영국 웨일스에 위치한 헤이온와이(Hay-on-Wye)는 원래 탄광촌이었으나 전국에 흩어져 있던 현 책을 판매하는 40여 곳의 헌책방을 통해 '책마을'로 거듭났다.

이들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 ▲장기 비전에 따른 꾸준한 정책 및 사업 집행 ▲전통과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프로젝트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칫 외형만 멋지게 꾸미려 할 경우 내실 없는 극적불명의 장식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가치기준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행정기관은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문화수도이자 민주·인권·평화도시인 광주를 표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한다. 광주시민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는 소통공간이자, 소통의 결과물이 곧 광주의 도시디자인이 되어야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광주시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 노력 중 하나가 광주시 관문디자인 공모이며, 앞으로 시민들이 직접 도시를 그려나가도록 하는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시 도시디자인과장〉

**제발 멈추기만 해도 마이녹실**

마이녹실은...  
 1. 스트레스 해소  
 2. 집중력 향상  
 3. 기억력 강화  
 4. 두뇌 활동 촉진  
 5. 기분 전환

마이녹실  
 마이녹실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마이녹실 임상결과**

마이녹실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마이녹실  
 마이녹실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마이녹실  
 마이녹실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